



A Study on Development of Evaluation System for Analyzing Feasibility of Musical Performance

WooYoung Song^{*}

Dept. of Music Ministry, Korea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in the past decades, and its income and cultural level have also greatly increased. However, support for cultural arts projects has been relatively recent and is still insufficient. As a result,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foundations are expanding support for performance projects. However, in order for public sector support to be effective, the performance project must have its own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in order for a specific performing arts project to be maintained over the long term, it must have business feasibility. However, it seems that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to develop the success factor of the performance business and the feasibility analysis is still lacking.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y to develop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performance by deducing success factors and importance of musical performance project. For this purpose, success factors of musical performance project were selected through precedent research and expert interview. In the next step, AHP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experts, and the importance of each success factor was calculated. As a final step, a systematic diagram of a system that can evaluate business feasibility by building an integrated databas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ducted earlier is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AHP analysis showed that the performances were the most important among physical factors, social factors, performance factors, and administrative factors. In the sub items, the reliability of the performer, the concept of performance, and the support of the local government were high.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a system to improve the feasibility of musical performances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 2018 KKITS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 Evaluation system, Feasibility analysis, Musical performance, AHP analysis, Integrated database

ARTICLE INFO: Received 2 October 2018, Revised 8 November 2018, Accepted 7 December 2018.

^{*}Corresponding author is with *Dept. of Music Ministry*
Korea Nazarene University, 48 Wolbong-ro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31172, S.KOREA.
E-mail address: jazzbass@kornu.ac.kr

1. 서론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1970년에 2,600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17년에 2만 8천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면서 문화예술적인 경험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전쟁이후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량을 경제성장에 집중하여 공공부문의 문화 및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공연사업이 산업적으로 성장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한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표면상으로는 한국의 문화예술분야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산업적 확장성이 큰 일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문화예술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지역적 편차도 점차 커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단 등에서는 문화예술공연을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고 공연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부문의 지원도 공연자체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효율성이 낮아지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많아지게 될 경우 모럴해저드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특정 공연사업이 장기간 유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지원을 마중물로 해서 자체적인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평가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문적이고 보수적인 문화예술분야의 특성 상 적절한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미흡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분야의 공연을 중심으로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고 각 영향요인들의 중요도를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음악공연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음악공연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행하는 것은 2016년 공연예술실태조사결과 장르별 공연 중 양악부문이 12,237건으로 연극(6,359건), 뮤지컬(5,202건) 등 타 분야와 비교하여 2배 수준의 많은 공연이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성이 중요한 공연사업의 특성 상 적절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보다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 중요하므로 연구를 위한 전문가의 자문가능성과 연구자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연구범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3단계의 분석절차를 통해서 실행된다. 먼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선행연구 등을 통해서 음악공연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인들이 음악공연사업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분석을 실행하였다. 음악공연분야와 연관된 사업에 종사하거나 음악공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AHP분석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영향요인들을 기반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음악공연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에는 지자체의 통계자료 등 정량적 자료와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고려한 시스템의 구조도를 개발하였다.

표 1. 공연예술의 현황 및 추이
Table 1. Current Status and Trend of Performing Arts

구분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공연시설	개	944	984	1,034	1,026	992
공연단체수	개	2,108	-	2,284	2,293	2,364
공연시설 종사자수	명	11,224	11,738	12,669	12,513	11,394
공연단체 종사자수	명	50,847	-	55,858	49,663	51,195
공연시설 매출액	백만 원	377,169	414,204	368,890	387,433	343,458
공연단체 매출액	백만 원	335,876	-	390,425	394,058	404,533
공연프로그램 가동율	%	55.8	63.8	54.2	55.7	51.4
공연장 가동율	%	67.4	72.5	67.4	65.8	60.8
공연예술예산-중앙정부	억 원	1,392	-	2,405	2,251	3,235
공연예술예산-지방자치단체	억 원	7,907	-	7,526	11,466	12,470
공연예술예산 - 합계	억 원	9,299	-	9,931	14,017	15,705

자료 : 2017년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 공연예술사업의 현황

〈표 1〉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공연예술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여 2012년의 약 9,300억원에서 2016년에는 약 1조 5,700억원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연시설의 개수와 공연시설의 종사자수,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단체 수와 공연단체 종사자수, 매출액 등은 소폭증가하는데 그쳤고, 무엇보다 공연프로그램 가동율이나 공연장 가동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 공공부문의 지원은 효율성이 낮거나 향상속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지원에 앞서 공연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점차 낮아지고 있는 공연프로그램 가동율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연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어 공연을 사업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사업의 현황을 기반으로 선행연구와 전문가 등을 통해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음악공연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평가시스템 모델을 제시하였다.

3. AHP분석의 실행 및 결과

3.1 AHP분석의 개념 및 설계

본 연구에서는 음악공연의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평가하기 위해서 AHP분석을 실행하였다. AHP는 상위계층에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위계층에 있는 각 요소의 가중치를 측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상위계층의 요소 하에서 각 하위요소가 다른 하위요소에 비하여 우수한 정도를 나타내주는 수치로 구성되는 9점 척도 조사를 통하여 쌍대비교 행렬을 작성한다. 이 행렬로부터 고유치방법(eigenvalue method)을 이용하여 계층의 각 레벨마다 정규화 한 하나의 우선순위벡터를 산출한다. 마

지막으로 계층의 최상위에 위치한 의사결정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하위 단계에 있는 대안들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나타내주는 전체 계층에 대한 하나의 복합우선순위 벡터(priority vector)를 산출하는 방법을 통해 각 변수의 영향력을 도출 한다(조근태, 2003). AHP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해야 하며 전문가조사의 선행연구의 사례를 기준으로 할 때 특성상 20~5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각 응답자의 결과를 기하평균하여 종합적인 가중치를 산정한다. 행렬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문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2. AHP 설문구조
Table 2. AHP questionnaire structure

평가 항목	← 중요도 비교 →									평가 항목
항목 1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항목 2

1:1로 비교한 결과의 사례를 쌍대비교행렬로 제시하기 위한 아래의 표는 공연장규모가 내부시설 보다 중요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쌍대행렬은 고유치도출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게 된다.

표 3. 설문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Table 3. Relative Importance of Survey Items

	공연장규모	내부시설
공연장규모	1	2
내부시설	1/2	1

가중치 계산을 위한 기본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λ 는 행렬의 가장 큰 고유치가 되며 w 는 행렬의 우측고유벡터로서 변수의 가중치가 되고 위의 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pmatrix} 1-\lambda & 2 \\ 1/2 & 1-\lambda \end{pmatrix} \cdot \begin{pmatrix} w_1 \\ w_2 \end{pmatrix} = \begin{pmatrix} 0 \\ 0 \end{pmatrix}$$

위의 행렬식의 해로 $w_1 = 0.667$, $w_2=0.337$ 의 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공연장규모와 내부시설의 가중치는 각각 0.337과 0.667가 된다.

AHP를 통한 분석결과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답변에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관성은 평가자가 내린 판단의 논리적 모순을 측정하는 것으로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일관성 지수를 평균무작위수로 나눈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 CR)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일관성비율이 0.1이하이면 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다. 쌍대비교에서 얻은 값은 a_{ij} , 평가기준은 $C1, C2, C3...Cn$, 각 평가항목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w_1, w_2, w_3 인 경우 일관성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lambda_{max} = \frac{1}{n} \sum_{i=1}^n \frac{\sum_{j=1}^n w_i \times a_{ij}}{w_i}$$

$$C.I. = \frac{\lambda_{max} - n}{n - 1}$$

$$C.R. = \frac{C.I.}{R.I.} (R.I. = Random \in dex)$$

3.2 AHP분석의 실행

AHP분석은 크게 3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로 먼저 AHP분석을 위해서 평가항목을 도출한 후 설문지를 개발한다. 설문지 개발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행한다. 두 번째 단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AHP분석을 위한 설문을 실행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항목간 쌍대비교의 결과를 통해서 중요도를 도출한다. AHP설문의 특성 상 설문의 내용 및 방식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 설문지의 개발 및 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실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공연분야를 4가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섭외하였다. 먼저 대학에서 공연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실용음악 등 관련 분야 학과의 교수집단으로부터 설문에 대한 응답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직접 공연장을 사용하는 음악공연의 주체가 되는 직업연주자 집단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문성이 있는 수요자 측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음악공연의 실행자이면서 중요한 수요자 집단인 음악전공학생과 공연사업의 관람경험이 많아 전문성이 높은 집단을 ‘기타’로 하여 설문대상그룹에 포함하였다.

이들 각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선행연구 등을 통해서 도출된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AHP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당초 설문은 30부를 배포하였으나, 설문의 일관성에 오류가 발생한 5부를 제외하고 총 25명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설문응답자수는 교수 7명, 직업연주자 7명, 전공학생 5명, 기타 6명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경우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연간 관람회수는 ‘9회 이상’이 절반이상으로 공연예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층들이라고 할 수 있다.

AHP분석을 위해서는 음악공연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도출하고 쌍대비교를 실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요인의 도출을 위해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영향요인을 전문가 집단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정 및 보완하였다.

먼저 상위항목은 크게 공연사업의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공연요인, 행정적 요인 등 4가지로 구분하여 도출하고 상호간의 중요도를 분석하였으며, 다음 단계로 각 상위항목에 대해서 하위항목을 도출하였다. 먼저 물리적 요인은 ‘공연장규모’,

‘내부시설 만족도’, ‘공연장 접근성’, ‘주차시설’ 등 공연의 수요자가 공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측면에서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주요 배후 수요가 될 지역의 인구통계적 변수인 ‘지역 내 총인구’, ‘지역 내 소득’, ‘지역 내 연령분포’와 해당 지역에 공연을 위해서 방문했을 경우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근편의시설’ 등을 주요 영향요인으로 도출하였다.

표 4. AHP설문 참여자 수
Table 4. Number of AHP survey respondents

구분	교수	직업 연주자	전공 학생	기타	합계
참여자 수	7	7	5	6	25

표 5. 응답자 특성
Table 5. Number of AHP survey respondents

구 분		빈 도	퍼센트
연 령	30세 미만	5	20
	30대	4	16
	40대	10	40
	50대 이상	6	24
	합계	25	100
연 간 관람 회 수	3회 이하	4	16
	4~5회 이하	4	16
	6~8회 이하	3	12
	9회 이상	14	56
	합계	25	100
성 별	남 성	14	56
	여 성	11	44
	합 계	25	100

공연요인은 공연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공연(연주)분야’, ‘공연컨셉’, ‘연주자의 신뢰성’, ‘공연시간의 편리성’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요인은 공연이용의 편리성과 행정적 지원에 대한 것으로 ‘지

자체의 지원’, ‘예매의 편리성’, ‘결제의 편리성’, ‘공연료의 수준’ 등이 주요요인이 된다. 각 항목별 내용과 항목이 도출된 선행연구는 <표 4>에서 제시하였다.

3.3 AHP분석의 결과

AHP분석은 먼저 대항목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소항목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서 항목 내 중요도 및 우선순위와 전체 항목에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먼저, 대항목에서 분석의 중요도는 공연요인

(0.554), 행정적 요인(0.197), 물리적 요인(0.158), 사회적 요인(0.0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연자체의 경쟁력이 있다면 광역단위에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연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적 요인도 음악공연이 사업성을 갖추는데 중요하다는 평가도 함께 나타났다.

소항목에 대한 분석에서 항목 내 중요도는 ‘Local’ 로 표기되며 물리적 요인 중에서는 공연장규모와 주차시설 등 내부시설 보다는 외부시설의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요인에서는 지역 내 소득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6. AHP분석항목 및 계층설정
Table 6. AHP analysis items and layer settings

상위항목	중위항목	항목설명	항목근거
물리적 요인	공연장 규모	공연장 객석수, 공연장의 외관 등	강배형 외(2016) 김종열 외(2012) 신계화 외(2013) 송은아(2012)
	내부시설 만족도	좌석의 시야확보, 편의성, 조명, 음향 등	
	공연장 접근성	도로조건, 대중교통이용 등	
	주차시설	주차장 규모, 주차시설의 편리성	
사회적 요인	지역 내 총인구	인근지역의 총 인구	배동걸 외(2011) 장재민 외(2015) 조건 외(2016)
	지역 내 소득	인근지역의 소득	
	지역 내 연령분포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비율	
	인근편의시설	주변 쇼핑몰, 놀이시설입지 등	
공연 요인	공연(연주)분야	공연의 분야(재즈, 팝, 국악 등)	백성민 외(2017) 송은아(2012) 이지훈(2017)
	공연 컨셉	공연 컨셉의 명확성, 독창성 ex) 음악과 영화, 음악과 여행 등	
	연주자의 신뢰성	연주자의 인지도, 평판 등	
	공연시간의 편리성	공연시간의 적절성, 선택가능성 등	
행정적 요인	지자체의 지원	지자체의 공연비용지원, 공연장지원 등	강배형 외(2016) 백선희(2012) 송은아(2012)
	예매의 편리성	예매시스템의 접근성, 편리성	
	결제의 편리성	다양한 결제방법 지원	
	공연료의 수준	공연료, 할인혜택여부 등	

공연요인에서는 연주자의 신뢰성, 행정적 요인에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항목 내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AHP 분석결과
Table 7. AHP analysis items and layer settings

대항목 (중요도)	소항목	분석결과		CR
		Local	Global	
물리적 요인 (0.158)	공연장규모	0.394	0.062	0.06
	내부시설 만족도	0.077	0.012	
	공연장 접근성	0.394	0.062	
	주차시설	0.135	0.021	
사회적 요인 (0.090)	지역 내 총인구	0.097	0.009	0.08
	지역 내 소득	0.554	0.050	
	지역 내 연령분포	0.222	0.020	
	인근편의시설	0.127	0.011	
공연 요인 (0.554)	공연(연주)분야	0.080	0.044	0.05
	공연 컨셉	0.293	0.162	
	연주자의 신뢰성	0.543	0.301	
	공연시간의 편리성	0.084	0.046	
행정적 요인 (0.197)	지자체의 지원	0.487	0.096	0.06
	예매의 편리성	0.208	0.041	
	결제의 편리성	0.208	0.041	
	공연료의 수준	0.096	0.019	

소항목의 요인이 전체 항목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Global’로 표기되며, 연주자의 신뢰성이 0.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연의 주체가 연주자이고 관객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연컨셉(0.162), 지자체의 지원(0.096), 공연장 규모(0.062), 공연장 접근성(0.062)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연사업의 성공여부는 연주의 경쟁력과 공연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4. 음악공연 사업성분석 평가시스템

앞에서 AHP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음악공연의 사업성 영향요인과 요인별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활용하여 공연사업의 사업성분석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AHP분석으로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결정되었으므로 각 공연사업별로 해당 항목의 자료를 추출한 후 가중치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평가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분석을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요인에 대한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며 저장된 자료를 통해서 중요도를 산정하고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평가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자료에는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가 있으며, 정량적 자료인 지역별 인구와 소득, 인구분포 등은 정부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평가대상 공연사업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다. 공연요인 등 정성적 평가의 경우 해당 공연사업의 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를 척도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한다.

평가시스템에서는 정량적 평가결과와 정성적 평가결과를 적절한 평가척도에 따라서 동일한 척도를 기준으로 점수화하고 이러한 점수는 다시 AHP 분석으로 도출된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공연의 사업성평가점수를 도출할 수 있다. 평가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사후에 실제사업성과 비교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이러한 결과가 다시 평가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선되는 과정이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은 정부와 지자체의 음악공연 사업에 대한 지원에 활용하거나 공연기획사 등에서 사전에 사업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경우 앞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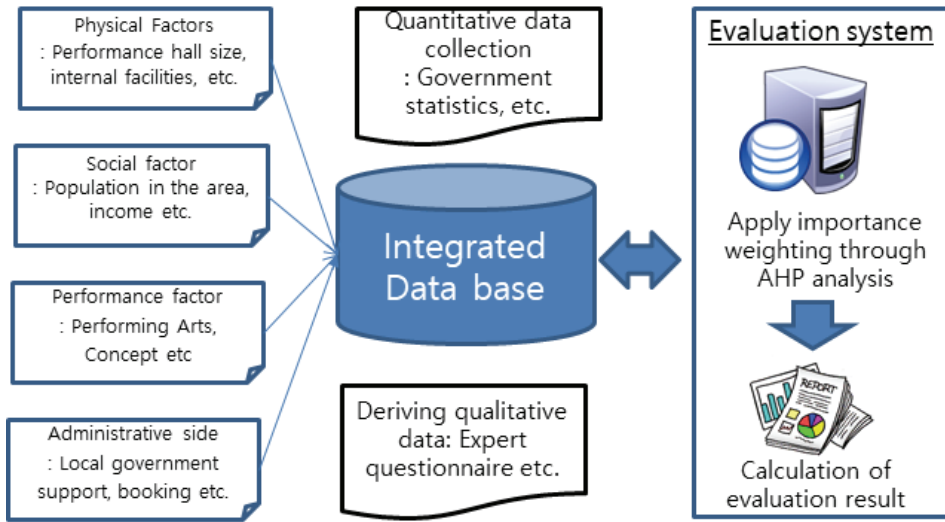


그림 1. 음악공연 사업성평가시스템의 구조도
 Figure 1. Structure of musical performance feasibility evaluation system

평가를 기반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결론

우리나라는 지난 수 십년간 경제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올렸으며 경제규모 측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 등에서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수준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적절한 사업성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사회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공연사업에 대한 사업성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와 전문가조사 등을 통해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AHP분석을 통해서 항목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공연자의 신뢰성과

공연컨셉 등 공연자체의 경쟁력이 사업성확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지원과 공연장의 규모와 주차시설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중요도 평가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공연사업의 사업성평가 프로세스와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구조도를 제시하였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연예술사업에 대한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고 평가의 타당성을 개선해 나간다면 향후 공연사업에 대한 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전체 공연사업 중 음악분야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었고, 정량과 정성지표의 평가척도에 대한 연구 및 실제 사업성과를 활용한 검증공정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과제로서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척도개발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항목 도출 및 실제 사업성과와의 비교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urvey on The Performing Art*, 2017.
- [2] G-T. Choi, Hierarchical decision, Dong Hyun Publishing Co. 2003.
- [3] B-H. Kang, and W-S, Seo,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location selection factors of integrated resorts using AHP*, Journal of Tourism&Leisure Research, Vol. 28. No 3, pp. 149-166, 2012.
- [4] J-Y. Kim, and M-C. Choi, *A study on the location of automotive repair shops by AHP applica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Vol. 25, No 5, pp. 3065-3090, 2012.
- [5] K-H. Shin, and H-R. Kim, *Effects of CEO's leader style on quality management activities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public performing arts theater*,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5, pp. 170-182, 2013.
- [6] E-A. Song, *A study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theater for performing arts*,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Academic Conference, pp. 19-23, 2012.
- [7] D-G. Bae, and S-K, Ha, *A study on the optimal location selection of housing - focused on housing developers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Vol. 23, No. 2, pp. 115-133, 2011.
- [8] J-M. Jang, T-H. Tommy Gim, and J-H. Ko, *A study on the decision of the location for a premium outlet :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utlet users*, GRI REVIEW, Vol. 17, No. 3, pp. 73-91, 2015.
- [9] G. Cho, and J-Y. Kang, *A study on the facility location for the state-run local government using AHP : Focused on the case of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in M province*,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29, No 3, pp. 377-396, 2016.
- [10] S-M. Park, and C-B, Kim,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mportance of factors influencing art center satisfaction between ordinary people and the art world workers*,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Vol. 42, pp. 103-147, 2017.
- [11] J-H. Lee, *A study on the influence on performance visits and reviewing intention of performance contents, facilities in the performance hall, and actor casting - Focusing on little theater -*,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1, No. 7, pp. 397-406, 2017 .
- [12] S-H. Beak, *Strategies for revitalizing public venues in Seoul*, Policy Report of Seoul Institute, pp. 1-19, 2012.
- [13] W-Y. Song, *A study on the optimal regional placement of performance facilitie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8, No. 1, pp. 197-202.
- [14] H. Seo, and G. Kim, *The study for location characteristics of urban cultural facilities in Seoul*, The Korea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autumn symposium, pp. 139-153, 2010.
- [15] M. Ko, and C. Lim, *Basic research on guidelines of performance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ol. 24, No. 6, pp. 125-136, 2008.

음악공연 사업성분석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송우영

나사렛대학교 음악목회학과 부교수

요 약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소득과 문화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지원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져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단 등에서는 공연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지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연사업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특정 공연사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연사업의 성공요인의 도출과 사업성 분석을 위한 시스템개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공연사업의 성공요인 및 그 중요도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연사업 사업성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선행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음악공연사업의 성공요인을 선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행하여 각 성공요인의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앞서 실행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조도를 제시하였다. AHP분석결과 사업성공요인의 대항목인 물리요인과 사회적 요인, 공연요인, 행정적 요인 중에서는 공연요인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항목에서는 연주자의 신뢰도와 공연컨셉, 지자체의 지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 조사와 정성적 조사를 통해서 음악공연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Woo-Young Song received the bachelor's degree in the Department of Material And Metallurgy Engineering from the Hong-Ik University in 1997. He graduated the Jazz Composition major (Music Diploma), Berklee College of Music, Boston, USA in 2002. He received the master's degree(MM) fro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in 2005. From 2005 to 2006, he was member of BMI Jazz Composers Workshop, NY, USA. He has been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Music Ministry, Korea Nazarene University since 2009.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application development, music producing system. He is a member of the KKITS.

E-mail address: jazzbass@kornu.ac.kr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8년도 나사렛대학교 교비학술연구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됨